

# 李穡과 杜甫의 詠病詩에 대한 비교 고찰

유지봉\*

## 目 录

1. 들어가기
2. 李穡과 杜甫 詠病詩의 양상
  - 1) 表現 면의 유사성
  - 2) 風格 면의 차이점
3. 病中戀君의 지향
4. 稱病稱老의 관습
5. 맺는말

## 1. 들어가기

백거이가 「病中五絶句」에 "세상살이에서 낡고, 늙고, 병드는 것은 평생 따르는 일이니, 이 일들은 마음속에서 일지기 스스로 알았다네.(世間生老病相隨, 此事心中久自知.)"라고 노래하듯이 질병은 인간이 평생 동안 상대해야 하는 인생길의 동반자이다. 그래서 질병도 문학의 영원한 주제 중의 하나가 된다. 고통만 가져다줄 질병은 시문학의 소재와 시창작의 감흥을 안겨준다는 것은 시인들에게는 불행 중의 행운이기도 하다.

최초의 영병시(詠病詩)는 한나라 때 병든 아내가 죽기 전에 남편에게 전하는 악부인 「病婦行」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원나라 方回는 『瀛奎律髓』중에 율시 주제를 49 가지로 나누었는데 그 중 44번째 '질병류' 밑에서 영병시가 시인들의 군자 모습을 드러내기 위해 창작된 것으로 설명했으나<sup>1)</sup> 시문학

\* 유지봉(劉志峰), 西安外國語大學校 韓國語學科 副教授, 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兼任研究員.

1) 方回, 『瀛奎律髓』, 合肥: 黃山書社出版社, 1994, 960쪽. 병이나 신음은 인간으로서 받

의 寫實性이나 기록 기능을 소홀한 것 같다. 영병시는 군자 자태를 보이기 위해 지어진 것만은 아니다. 시인 병중의 성찰과 사고·소감 등 내면세계를 그리면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병시의 개념은 아직 정립되지 않기 때문에 관한 통계도 다양한 모습이 드러난다. 예컨대 백거이 영병시 수는 76수가 된다는 연구<sup>2)</sup>와 400수를 넘는다는 연구<sup>3)</sup>도 있는가 하면 두보의 영병시 수는 167수<sup>4)</sup>와 240수<sup>5)</sup>가 된다는 연구결과가 각각 나왔다. 간혹 질병이 언급되는 작품을 바탕으로 『唐詩類苑』 ‘人部(疾病)’조에 수록된 작품과 비교함으로써 영병시 연구범위를 확정하는 방법<sup>6)</sup>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병시’ 개념은 아직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 실정이다.

영병시는 광의적으로 질병을 언급하는 시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 협의적으로 질병을 시의 주된 제재나 소재로 하고 다른 동료나 시인(가족 제외)과 주고받는 唱酬作品이나 시 구조상, 특히 율시의 대구구조만을 충족시키기 위해 지은 작품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한다. 그 외에 병든 식물이나 동물을 읊는 ‘詠病物詩’도 시인 자신을 투영한 것이니 협의적인 영병시에 속한다고 본다. 또 영병은 질병 자체를 위주로 읊는다는 반면에 칭병이나 칭로는 시인이 스스로가 병을 앓는다는가 늙어간다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즉 영병은 스스로가 병이 들어 병중 감회를 노래하는 것이고 칭병은 사람 앞에서

---

시 있는 일이다. 백낙천은 “劉楨은 병으로 장포에서 눕게 되고 謝靈運은 병으로 임천에서 누운 적이 있어 모두 훌륭한 문장을 지었다.”고 한다. 대개 근심을 가라앉히고 우울함을 달래기를 통해 선비의 군자다운 지조를 보여줄 수 있다.疾病呻吟, 人之所必有也. 白樂天有云: “劉公幹臥病漳浦, 謝康樂臥病臨川, 咸有篇章.” 蓋娛憂紓怨, 尤足以見士君子之操焉.

- 2) 孫立峰, 「絕路詩人求生的幻境--白居易詠病詩的思想和藝術價值」, 『學習與探索』, 1994년 4기, 114쪽.
- 3) 蒙祖富, 「論疾病與白居易詩歌的關係」, 『貴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2년 4기, 91쪽.
- 4) 程校花, 「論杜甫的疾病詩及其文學史意義」, 『太原大學學報』, 2010년 4기, 56쪽.
- 5) 黃靜, 「藝術造詣與生命悲歌--杜甫疾病詩藝術探索」, 『海南師範大學學報』, 2014년 10기, 73쪽.
- 6) 李奉相, 「강복좌천 이전 白居易의 질병과 '詠病詩」, 『中國文學研究』 제41집, 한국중문학회, 2010, 6쪽.

스스로가 자신이 병든다는 것(실제로 병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다)을 놀림조로 읊는 것이다.

본고는 고려인물 중에 가장 다채로운 질병 기록을 남긴다고<sup>7)</sup> 평가받는 牧隱 李穡과 근체시의 완성자인 ‘詩聖’ 杜甫를 선택하여 두 시인의 영병시를 비교고찰을 하기로 한다. 그 이유는 아래 3 가지가 있다.

첫째, 두 시인 시문학 간에 비교문학적인 영향관계가 존재한다.<sup>8)</sup> 이색은 고려후기 성리학 학자이자 교육을 관장한 관료로서 시작품에 두보를 자주 언급하고 칠언율시 「讀杜詩」에는 『新唐書』를 인용하여 두보의 문학적 업적을 노래하기도 했다.<sup>9)</sup> 또한 시를 창작하기에는 ‘소릉만 배워야 하고 새로운 것을 받을 필요가 없다.’<sup>10)</sup> ‘고심하여 두시를 배운다.’<sup>11)</sup> ‘두 공부 시 구절을 자주 되풀이해 읊는다.’<sup>12)</sup> ‘두 소릉 시에 세 번 거듭 한탄한다.’<sup>13)</sup> 라는 시를 지어

- 7) 姜玟求, 「牧隱 李穡의 疾病에 대한 意識과 文學的 表現」, 『東方漢文學』 제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196쪽.
- 8) 曹浩龍, 「牧隱詩 研究」,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呂運弼, 『李穡의 詩文學 研究』, 태학사, 1995.  
劉志峰, 「이색과 두보 시문학 비교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 9) 『牧隱詩藁』 권8, 「讀杜詩」. ‘고금에 뛰어난 노래를 누가 능히 이을 거냐면 유평 여향이 후인에게 많은 도움 주었네.(古今絕唱誰能繼 勝馥殘膏巧後人) 『新唐書』 권201, 열전 126, 「杜審言杜甫傳贊」, “두보에 이르러서 그의 시는 막막한 바다와 같이 천 가지 강물을 융합하고 만 가지 양상을 보인다. 고금인의 장점을 한 몸에 겸하여, 다른 사람의 부족한 것을 두보는 여유 있게 갖추었으므로, 그 유평과 여향이 후인들에게 영향을 입힌 것이 많았다.(至甫 渾涵汪洋 千匯萬狀 兼古今而有之 他人不足 甫乃厭餘 殘膏賸馥 沾巧後人多矣)”
- 10) 『牧隱詩藁』 권21 「前篇意在興吾道大也不可必也 至於詩家 亦有正宗 故以少陵終焉 幸無忽」, ‘시를 하려면 꼭 이 사람을 배워야 하나 지위가 현격해 산 오르기같이 어렵구려. 원재는 내 한 구절의 말을 수긍할는지 소릉만 배우고 새로운 것 취하지 마라.[爲詩必也學斯人, 地位懸隔山難因. 圓齋肯我一句語, 只學少陵無取新.]’
- 11) 『牧隱詩藁』 권10, 「感懷」, ‘예전엔 용기 내어 낙양책을 진술했는데 이제는 고심하여 두보의 시를 배우노라.(張膽曾陳洛陽策 苦心方學杜陵詩)’
- 12) 『牧隱詩藁』 권13, 「柳開城送牛蒡 蔥 蘿蔔并沈茶醬」, ‘두공부 시 한 연을 자주 되풀이해 읊으며 몹시 가난하지 않았던 금리를 회상하노라.(工部一聯時三復 回頭錦里不全貧)’
- 13) 『牧隱詩藁』 권24, 「讀歸去來辭」, ‘어찌 한 점이나마 곤궁함을 한하였으랴 나는 지금 두릉 시를 세 번 거듭 한탄하네.(一點何曾恨枯稟 我今三嘆杜陵詩)’

서 두시를 애써 배운 것으로 보인다.

둘째, 두 시인은 모두 질병에 관한 적지 않은 시를 창작했다. 특히 퇴로기에 유난히 많이 지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牧隱詩藁』 6,000여 수 작품 중에 ‘병’자와 ‘질’자가 각 967 회와 108 회로 나타나고 『杜詩全集』 1,460여 수 작품 중에 ‘병’자와 ‘질’자가 각 170 회와 45 회로 나타난다. 그러나 『唐詩類苑(四)』 ‘人部(疾病)’에 수록된 백거이 시는 33제 48수나 이르는 반면에 두시는 5수밖에 안 되는 것을 보면 백거이도 적지 않은 질병에 관한 시를 지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두 시인은 모두 유사한 질병 경험이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두보와 이색은 유사한 질병, 즉 안질·치병·폐병 등을 앓고 병통에 시달렸다. 이와 같은 유사한 질병 체험을 소지로 그들의 시문학에서도 공통된 특징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만약 공통점이 많지 않더라도 차이점의 면모와 원인을 탐구할 만하다. 본고는 비교고찰을 통해 이색과 두보 시의 문학적 특색과 연관성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고전문학 분야에 종종 보이는 ‘칭병’이나 ‘칭로’의 관습도 살펴보고자 한다.

## 2. 李穡과 杜甫 詠病詩의 양상

이색과 두보의 생애를 보면 모두 중층 관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각기 나라의 혼란기를 겪어봤으며, 좌천당하거나 유배된 경험이 있었고 퇴로기에 시를 많이 지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sup>14)</sup> 퇴로기의 창작에 대하여 두보는 49세~59세인 마지막 10년에 작품 전체 2/3에 해당하는 1,000수 넘는 시를 지었다. 이색은 48세~58세에(34세~47세와 59세~63세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았다.) 시 3500제를, 즉 『목은시고』의 80%에 해당하는 작품을 지었다는 것이다.<sup>15)</sup> 그래서 이색과 두보는 병통이 가장 심각했던 시기에 시를 많이 창작했

14) 劉志峰, 앞의 논문, 25~32쪽.

기 때문에 영병시가 많다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다.

다른 시인과 비교하면 두보와 이색은 영병시를 많이 창작했다는 편이다. 두보 영병시 수는 167수로서 백거이 영병시 76수보다 더 많다는 연구결과<sup>16)</sup>도 있으나 실제로 백거이 영병시 수는 400수 넘는 것으로 두보 영병시의 규모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필자는 앞에서 제시된 협의적 ‘영병시’ 개념에 따라 두보 영병시 수는 83수로 통계한다. 그리고 이색 시어 통계연구에 따라 ‘病’자는 총 967 회로 나타나서 『목은시고』에 사용빈도가 가장 높은 100개 글자 중에 31번 순위라고 제시된다.<sup>17)</sup> 대조적으로 이규보와 이곡 시에 ‘病’자는 많이 나타나지 않고 빈도 글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두보 생애연구에 따라 폐병·학질·頭風病·소갈증·천식·면부신경통·치통·류머티즘 등 병을 앓고 있었고, 만년에 들어 중풍에 걸린 바람에 한 쪽 팔도 한동안 마비되었다고 한다.<sup>18)</sup> 또한 「耳聾」<sup>19)</sup>·「小寒食舟中作」<sup>20)</sup> 등을 보면 두보가夔州 생활시기(766-768)에 시각과 청각 장애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색 영병시를 보면 유난히 많이 언급된 질병으로서 요통·치통·안질·종기 등 신체적 질병이 있고 심성에도 병이 들었다고 한다.<sup>21)</sup> 이 외에 폐병·다릿병에도 걸린 것으로 보인다.

이색의 어마어마한 6,000 여수 한시 작품을 일일이 영병시 확인하기가 어렵겠지만 영병시가 적어도 몇 백수까지 이를 것으로 추측된다. 이어서 질병 종류에 따라 두보와 이색 영병시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15) 李益柱, 『이색의 삶과 생각』, 일조각, 2013, 328~458쪽.

16) 程校花, 「論杜甫의 疾病詩及其文學史意義」, 『太原大學學報』, 2010년 제4기, 56~60쪽.

17) 金鎮英, 金東建, 「목은 이색의 삶과 시세계의 몇 국면」, 『국어국문학』 제150집, 국어국문학회, 2008, 244-247쪽.

18) 韓成武, 『杜甫新論』, 河北大學出版社, 1984, 123쪽.

19) 『杜甫全集校注』권17, 「耳聾」, ‘눈은 또 언제쯤 어두워질까? 귀는 지난달부터 어두워졌는데.(眼復幾時暗 耳從今月聾)’

20) 『杜甫全集校注』권20, 「小寒食舟中作」, ‘눈은 또 언제쯤 어두워질까? 귀는 지난달부터 어두워졌는데.(眼復幾時暗 耳從今月聾)’

21) 姜攸求, 「牧隱 李穡의 疾病에 대한 意識과 文學的 表現」, 『東方漢文學』 제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196쪽.

## 〈丑-1〉杜甫의 詠病詩

병증/주제	시 제목	시 구절
消渴症	示獠奴阿段	病渴三更迴白首, 傳聲一注濕青雲.
	熟食日示宗文宗武	消渴遊江漢, 羈縻尙甲兵.
	秋日夔府詠懷一百韻	飄零仍百里, 消渴已三年.
	過南嶽入洞庭湖	病渴身何去, 春生力更無.
肺病	十二月一日三首	明光起草人所羨, 肺病幾時朝日邊.
	返照	衰公病肺惟高枕, 絕塞愁時早閉門.
	又上後園山脚	肺萎屬久戰, 骨出熱中腸.
	秋峽	江濤萬古峽, 肺氣久衰翁.
	北風	且知寬疾肺, 不敢恨危途.
聾病	耳聾	眼復幾時暗, 耳從今月聾.
	獨坐二首	亦知行不逮, 苦恨耳多聾.
	復陰	君不見夔子之國杜陵翁, 牙齒半落左耳聾.
	清明二首	此身飄泊苦西東, 右臂偏枯半耳聾.
眼疾	寓目	自傷遲暮眼, 喪亂飽經過.
	釋悶	江邊老翁錯料事, 眼暗不見風塵清.
	天河歌	杜陵老翁兩眼暗, 天地冥冥塵霧擁.
다릿병	客居	臥愁病脚廢, 徐步視小園.
	西閣曝日	敲傾煩注眼 容易收病脚.
齒痛	春日江村五首	豈知牙齒落, 名玷薦賢中.
	莫相疑行	男兒生無所成頭皓白, 牙齒欲落真可惜.
	復陰	君不見夔子之國杜陵翁, 牙齒半落左耳聾.
	廻棹	几杖將衰齒, 茅茨寄短椽.
病中戀君詩	杜鵑	今忽暮春間 值我病經年 身病不能拜 淚下如迸泉
	南征	老病南征日 君恩北望心
	入衡州	報主身已老 入朝病見妨
	憶昔二首	周宣中興望我皇 灑淚江漢身衰疾
	搖落	長懷報明主 臥病復高秋
	夔府書懷四十韻	病隔君臣議 慚紆德澤私
	晚登瀘上堂	衰老自成病 郎官未爲冗
	社日兩篇	鴛鴦迴金闕 誰憐病峽中

병증/주제	시 제목	시 구절
	野望	惟將遲暮供多病 未有涓埃答聖朝
	客亭	聖朝無棄物 衰病已成翁
詠病物詩	病柏·病橘·枯柎·枯稜·瘦馬行·病馬·呀鵲行	
疾病 詩語 表現	老病(旅夜書懷, 入宅三首, 老病, 暇日小園散病, 詠懷二首, 登岳陽樓, 壯遊, 賓至, 水檻遣心二首), 多病(雨四首, 登高, 偶題, 夜雨, 白沙渡, 江村, 漫成二首), 抱病(東屯月夜, 九日五首, 承聞河北諸道節度入朝, 臥病(歷歷, 暮春, 所思), 貧病(秋野五首, 赤谷), 衰病(元日示宗武, 遠遊), 衰疾(營屋, 遣興, 雲山, 水會渡), 病無力(上白帝城二首), 骨盡病(熱三首), 病不辭(垂白), 罷病(愁), 諸病入(早發), 病方入(逃難), 客病(小園), 病身(朝二首), 病多(太歲日), 身病(上水遣懷), 病欲蘇(江漢), 舊疾(客堂), 抱疾(偶題), 抱疾病(櫻拂子), 病去憂(憶弟二首)	

〈표-2〉 李穡의 詠病詩 例示

병증	시 제목(권수)	시 구절
腰痛	「曉吟」(권17)	腰酸夜方劇, 頭痛曉來輕.
	「卽事」(권18)	不耐腰酸欲暫眠, 却扶藜杖望青天.
	「曉吟」(권20)	腰酸方劇夜添壽, 早起朝天雪滿頭.
	「腰酸縮座」(권20)	天陰病骨劇酸辛, 摩挫長教小婢噴.
	「曉吟」(권20)	且問感恩誰最甚, 病餘腰脚尙微酸.
	「昨夜庚申 熟睡達旦」(권20)	病中禍福都忘了, 熨罷酸腰達旦眠.
	「自傷」(권21)	腰酸不出南窓靜, 坐想驪江遠釣磯.
	「自詠」(권21)	臂酸腰痛曉來并, 瓦片新燒帖得平.
	「有感」(권23)	時見白雲出, 我今腰脚頑.
	「腰酸」(권23)	腰酸燒瓦急, 心悶煮茶頻.
	「自嘆」(권24)	腰酸又熨瓦, 心悶長吟詩.
	「奈何」(권26)	奈何腰又酸, 夜半眠不安.
	「黃埃」(권26)	獨居守寂寞, 遂致腰脚頑.
	「卽事」(권28)	腰脚酸辛夢不成, 小娃急踏奈身輕.
	「欲出」(권28)	欲出腰酸甚, 開窓抱膝吟.
	「腰酸行」(권29)	奈何腰痛又如前, 徑呼小婢燒古甄.
	「腰酸」(권31)	腰酸自難忍, 火烈瓦頻燒.
	「熨腰有感」(권32)	清晨燒瓦熨腰肢, 忍苦抽毫寫出詩.
「赴闕起居而歸」(권33)	獨蒙賜酒心多感. 只是腰酸再拜難.	

병증	시 제목(권수)	시 구절
齒痛	「夜詠」(권7)	齒病連頭痛, 腰酸入骨深.
	「卽事」(권7)	爛煮菜根宜病齒, 淨乾蔬葉喪長腰.
	「吟病齒」(권7)	餘生多苦澁, 病齒劇殘傷.
	「感懷」(권10)	看來贅語終無用, 只得中年齒髮衰.
	「詠僧我 其莖甚酸 僧我鄉名」(권11)	乍看眉已蹙, 欲嚼齒先酸.
	「述懷」(권12)	病後忘情齒髮凋, 渾家食祿謝清朝.
	「有感」(권12)	秋月春風顏色悴, 暮鹽朝齧齒牙疎.
	「自詠」(권14)	頭痛不禁仍齒痛, 身安未必使心安.
	「曉起」(권14)	曉來牙齒猶微痛, 坐聽家童掃地聲.
	「病齒」(권16)	軟炊爛煮補衰腸, 怪底齒牙猶被傷.
	「詠杏」(권16)	牛郎家送杏團團, 細嚼衰翁齒自酸.
	「遣興」(권17)	病中偃臥身心苦, 亂後謳吟齒髮衰.
	「有感」(권19)	悠悠出處定何似, 霜雪滿頭牙齒疎.
	「嘗新栗」(권25)	風打一枝俄下墜, 剝來何患齒牙稀.
	「曉霧前篇」(권25)	外邪攻擊疾病作, 鬢髮漸稀牙齒落.
	「齒痛」(권27)	齒痛吾衰甚, 年來脫去多.
	「齒痛復作 苦不可忍 倩工擊去之…」(권27)	齒如猛將主攻堅, 口吻中間柄大權.
	「無題」(권27)	只恨臨分牙齒痛, 閉門空想馬如飛.
	「我老」(권28)	眼昏看細字, 齒病嚼乾魚.
	「自詠」(권29)	齒髮方衰倍蕭索, 文章自少欠精華.
「歲暮」(권31)	歲暮江山靜, 吾生齒髮疎.	
「對雨書懷」(권32)	儼是吾生保殘齒, 黃鸝江上少風塵.	
「大舍求豆腐來餉」(권33)	便見宜疎齒, 眞堪養老身.	
「自笑」(권34)	髮白齒又落, 餘生能幾何.	
「戲題」(권35)	縱使得還何所用, 齒牙落盡眼朦朧.	
肺病	「自吟」(권10)	肺病自耽酒, 眼昏猶讀書.
	「眠魔行」(권14)	肝腎翻動痰上逆, 肺受橫侵胸膈否.
	「我昔」(권24)	忽值沴氣作, 令人肝肺摧.
眼疾	「詠梅花」(권6)	腸鐵誰知工作賦, 眼花偏喜淨無塵.
	「卽事」(권7)	瓦片熨餘腰又痛, 茶芽洗後眼仍昏.
	「雪」(권7)	煎茗欲澆心地赤, 對山難刮眼花玄.

병증	시 제목(권수)	시 구절
	「登東山」(권7)	昏眼任生花, 白髮慵不鋪.
	「記游喬桐」(권7)	祇今眼病頻追悔, 夜讀殘書月滿林.
	「卽事」(권8)	淑景淸昏眼, 孤芳入病肝.
	「憶梅花」(권8)	怪底眼昏春更甚, 只緣不見一枝梅.
	「早起」(권10)	扶病觀書兩眼花, 歸來上謁侍中家.
	「得寧海族中書」(권12)	欲向東溟看出日, 却嗟雙眼已先昏.
	「又賦」(권12)	老父教兒難造次, 眼昏多翳鬢毛華.
	「卽事」(권14)	病廢身如退, 憂居眼已枯.
	「自詠」(권16)	眼疾年發, 狂心日日新.
	「曉霧」(권20)	蒙頭坐不出, 病眼翳難醫.
	「自慰」(권22)	我眼力又弱, 萬里秋毫何漠漠.
	「讀詩行」(권22)	老年讀詩雙眼黑, 迷如半夜行荆棘.
	「有感」(권23)	邇來無眼力, 最是讀書難.
	「有感」(권23)	我髮梳益短, 我眼洗益昏.
	「早興」(권23)	心清漸寬輕無垢, 眼暗偏欣淨不塵.
	「因事有感」(권33)	誰將數尺葦簾橫, 奪我西窓刮眼明.
다릿병	「浩歌」(권22)	詩書摧頽吾志倦, 岳瀆溟濛吾脚蹇.

이상 정리한 바와 같이 두보는 소갈증·폐병·귓병·안병·다릿병·치통에 관한 영병시를 지었고 이색은 요병·치병·폐병·안병·다릿병 등에 관한 영병시를 창작했다는 것을 확인한다. 이어서 표현과 풍격 방향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검토할 것이다.

### 1) 表現 면의 유사성

질병 표현 면의 유사성은 주로 어휘·전고 면에 집중되어 있다.

- ① 강변 노옹이 일을 잘못 헤아린 것인지, 눈이 어두워서 풍진이 맑아짐을 보지 못하겠네.

江邊老翁錯料事, 眼暗不見風塵清. --두보 「釋悶」

- ② 맘은 맑아 때 없어 경쾌함을 점차 깨닫고 눈은 어두워 먼지 안 보임이 유독 기쁘네.

心清漸寬輕無垢, 眼暗偏欣淨不塵. --이색 「早興」(권23)

- ③ 맹인의 눈꺼풀을 금비로 떼어낸 것처럼 눈을 떴고 백 수레의 거거만큼 값지겠네.

金篦刮眼膜, 價重百車渠. --두보 「謁文公上方」

- ④ 이 물로 차 달여 불타는 심장에 붓고자 하나 산을 마주해도 눈 흐림은 제거하기 어렵네.

煎茗欲澆心地赤, 對山難刮眼花玄. --이색 「雪」(권7)

보기 ①②처럼 ‘눈이 어둡다’는 뜻인 ‘眼暗’이라는 말은 두보와 이색 영병시에 모두 나타났는데 안질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된다. 보기 ③④에는 ‘刮眼’이라는 말도 있으나 의미는 다르다고 본다. 「謁文公上方」은 영병시가 아니고 두보가 文公의 절을 배알하는 기행을 읊은 시인데 불교 『涅槃經』 ‘金篦刮眼’이란 고사를 인용하여 안질을 치료하기 위해 날카로운 금비로 안막을 제거한 후 환하게 볼 수 있듯이 불법을 명확히 터득하기를 말한 것이고 목은 시 「雪」에는 ‘괄안’이라는 방법으로 멀게 된 눈을 치료하고 싶은 마음을 드러냈다.

- ⑤ 내가 오랫동안 장경의 병에 걸려 시간이 갈수록 조정을 생각한다.

我多長卿病, 日久思朝廷. --두보 「同元使君春陵行」

- ⑥ 사마상여는 몸에 병이 많고 계강은 옛 벗을 멀리하네.

文園多病後, 中散舊交疎. --두보 「贈李八祕書別三十韻」

- ⑦ 어찌하여 소갈병에 앓아서 문득 사마상여의 자취를 이었는고.

胡爲病消渴, 却繼相如躅. --이색 「竹枯歎」(권5)

- ⑧ 미러로 새어 나가듯 물욕이 끝없는데 늘그막의 소갈병은 마치 사마상여 같네.

情欲無涯洩尾閭, 老年消渴似相如. 이색--「訪柳巷不過 詠懷而歸」(권15)

또한 보기 ⑤⑥⑦⑧은 모두 소갈병으로 유명한 한나라 司馬相如에 관한 고사를 인용한다. 두보가 이 고사를 인용한 것은 기주시기에 소갈병에 걸리게 된 일에 연관된다고 본다. 기존 연구에 따라 이색은 소갈병에 걸렸다는 기록이 없었으나 이색은 「竹枯歎」(권5)과 「訪柳巷不過 詠懷而歸」(권15)에 스스로 소갈병에 앓는다고 했으나 영병시 중에 언급한 적이 없어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본다.

뿐만 아니라 두보는 「病柏」·「病橘」·「枯枿」·「枯櫟」·「瘦馬行」·「呀鶻行」 등 병들거나 말라비틀어진 나무나 마른 말, 병든 새 등 식물과 동물을 노래하는 이른바 ‘영병물시’를 창작함으로써 서글픈 처지를 투영하기도 한다. 「呀鶻行」은 다음과 같다.

病鶻孤飛俗眼醜 병든 송골매가 높이 날지 못한 것을 보고 속인들이 추하다고 한데  
 每夜江邊宿衰柳 날마다 밤에 강가의 늙은 버드나무에서 잠자고 있네.  
 清秋落日已側身 늦은 가을 해질 무렵에 몸이 기울어지고 날면서  
 過雁歸鴉錯廻首 지나간 까마귀와 기러기들이 서둘러 머리를 돌려보네.  
 緊腦雄姿迷所向 머리털이 붙인 채로 날아갈 방향도 잘 모르고  
 疎翮稀毛不可狀 깃축이 성기고 털이 드문드문한 모습을 그려낼 수 없네.  
 強神非復皂雕前 세찬 정신이 독수리보다 더 강하고  
 俊才早在蒼鷹上 뛰어난 재주가 참매에 비해 더 낫네.  
 風濤颯颯寒山陰 바람이 싸싸 일어나고 추운 산이 어두워질 무렵에  
 熊羆欲蝮龍蛇深 큰곰이 겨울잠을 자고 용과 뱀도 잔잔해지네.  
 念爾此時有一擲 자네가 이 때에는 힘차게 뛰어올라 갈 수 있는 것을 알지만  
 失聲濺血非其心 병들어서 피가 흘날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원한 일이 아니겠다.

이 시는 「瘦馬行」의 주제와 비슷한데 浦起龍은 시인이 강가에 사는 동안에 병들고 무시당한 송골매를 보고 지은 시라고 한다.<sup>22)</sup> 병든 송골매의 모습이

초라하지만 힘차게 뛰어오르는 기력이 여전하다는 말은 시인이 아직 공적을 세울 뜻을 품고 있다는 뜻이고 병든 것도 자신이 원하는 일이 아니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지 않았으나 병든 송골매 심상에 투영하는 방식으로 병중 감회를 읊는다.

이색도 「靑行纏歌」(권8)에 마르고 여윈 자신 모습을 병든 학에 비유한 적도 있다.<sup>23)</sup> 고령사가 이백에게 신을 벗겨 준다는 고사를 원용하여 재능에 대한 자부심과 청운의 뜻을 노래했다. 또한 「病鶴吟」(권10)에도 병든 학의 형상을 읊었다.

琳宮寂寂非塵寰	질집은 적적하여 인간 세상이 아닌데
羽客肅肅丹霞冠	신선은 엄연하게 붉은 놀의 관을 쓰고
適騎胎仙游海山	마침 학을 타고 바다와 산을 유람하다가
歸來碧空風露寒	돌아오매 푸른 하늘 바람 이슬 차가워라.
人間歲月如跳丸	인간의 세월은 날아가는 공처럼 빠른데
長頸瘦驅意態頑	기다란 목 파리한 몸에 의지는 굳세거니와
精神曠蕩誰能攀	광활한 그 정신을 누가 능히 부여잡을꼬.
長生不老朝帝壇	늙지 않고 오래 살아서 상제께 조회하니
至今鷄犬棲雲間	지금까지 닭과 개들도 구름 새에 깃들었네.
雖然示病非甚艱	병색이 있긴 하나 그리 어려운 건 아니라
振翮一鳴天地寬	날개 떨치며 한번 울면 천지를 진동하고요.
蓬萊月白波漫漫	봉래산에 달 밝고 동해 물결 아득한 곳에선
俯視蟻蠅生死關	하루살이 같은 인간의 생사를 굽어본다네. <sup>24)</sup>

시인은 신선세계 선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다. 자신의 파리한 모습과

22) 蕭滌非 편, 『杜甫全集校註』 10, 人民文學出版社, 2014, 5584쪽.

23) 徐居正 편, 양주동 번역, 『東文選』 권8, 「靑行纏歌」, 1968. ‘시커먼 내 정강이 살이 없어서 뼈뼈 마르고 여윈 몸 병든 학이나.(我有長脰黑無肉, 閣得瘦軀如病鶴.)’

24) 임정기 번역, 『牧隱詩藁』 권10, 「病鶴吟」, 한국고전종합DB, 2001.

정신은 학을 닮는다. 군왕 옆에서 충성심을 다하는 학인 자신은 개·닭과 같은 소인배를 비웃고 있다. 비록 병색이 있지만 곧 학처럼 날개를 떨치고 뜻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연에 자신이 봉래산에서 사는 신선인 듯이 인간세계를 굽어본다는 것은 초월적인 존재의 마음으로 인간 세상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다.

「病鶴吟」과 「呀鵲行」은 이색과 두보가 병을 앓은 처지라도 결코 타협하지 않은 뜻을 보여주고 현실에 대한 관심도 보여주었다. 다만 이색은 조정에서 백성을 굽어보는 시각과 달리 두보는 하층 관리이지만 백성의 고통을 몸소 체험하고 이색보다 더욱 투철한 애민정신을 드러냈다. 병든 송골매나 학의 심상을 빌려 뜻을 노래하는 점에서 「呀鵲行」과 「病鶴吟」은 공통점이 있는 영병시가 되겠으나 6,000여수의 이색 한시에는 「靑行纏歌」와 「病鶴吟」밖에 다른 유사한 작품이 거의 없으므로 이색 영병시의 대표하는 유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재미있는 것은 백거이 영병시 중에 「病中對病鶴」이라는 작품도 있다.<sup>25)</sup> 「呀鵲行」에 나타난 ‘세찬 정신(強神)’이나 「病鶴吟」에 나타난 ‘광활한 정신(精神曠蕩)’과 같이 ‘날개 깃털만 다쳤을 뿐 기세가 꺾이지 않네(精神不損翅翎傷)’라는 표현이 있다. 그러나 두보와 이색 시에 드러난 굽히지 않은 의지에 비하여 백거이 시에는 높은 하늘에 날지 못한 학의 모습에 슬퍼하고 머리카락과 학의 하얀 털과 같다고 한탄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이색과 두보 영병시는 일부 유사한 전고나 묘사 표현을 사용했고 병든 새의 심상을 빌려서 병든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는 면에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하지만 유사한 시어 표현에 비해 육신의 병

25) 「病中對病鶴」, ‘병을 앓은 남자가 병든 학을 불쌍하게 보고 있으며, 날개 깃털만 다쳤을 뿐 기세가 꺾이지 않네. 다시 날개를 떨치고 하늘을 찌르지 않겠네만 함께 살 길을 찾는 것에 벗이 되겠네. 슬프게 소리 지르면서 울음소리만 하더니 나의 속된 모습으로 당당한 위의를 바라보지도 못하네. 서로 비슷한 점이 유독 한 가지가 있는데 나와 자네의 머리털이 모두 하얀 서리와 똑같네.(同病病夫憐病鶴, 精神不損翅翎傷. 未堪再舉摩霄漢, 只合相隨覓稻粱. 但作悲吟和嘹唳, 難將俗貌對昂藏. 唯應一事宜爲伴, 我發君毛俱似霜.)

통을 겪으면서도 영병시를 통해 여러 질병을 형상화하면서 돋보이는 고통에 굴복하지 않고 극복하려는 의지가 제일 인상적인 공통점이고 영병시에 담긴 보편성이라고 할 수 있다.

## 2) 風格 면의 차이점

두보와 이색의 영병시는 표현 면의 일부 유사성을 보이지만 전반적인 풍격을 보면 큰 차이가 드러난다. 여운필은 일지기 목은 시의 풍격이 “송시풍을 기반으로 한 당시 수용<sup>26)</sup>”이라고 했는데 이 평가는 이색의 영병시에도 적용된다고 본다. 먼저 제목부터 보면 직접 질병을 제목으로 한 두시는 「老病」·「耳聾」·「江閣臥病走筆寄呈崔盧兩侍御」 등 몇 수밖에 없는 반면에 이색 한시에 많이 나타난다. <표-2>에도 「腰酸縮座」·「腰酸」·「腰酸行」·「吟病齒」·「齒痛」 등이 있다. 당나라 시인들은 이가 아프거나 허리가 쭈신다는 것과 같은 미세한 주제로 시를 짓기를 선호하지 않았다. 두보와 이색의 영병시의 근본 차이는 질병에 대한 다른 창작의식이다. 전체적으로 송시의 영향을 받은 고려한시는 주제나 풍격 면에 두시와 현격한 차이를 드러낸다. 물론 두시는 전형적인 당시라기보다 당시와 송시 간에 과도 형태의 성격을 지닌다. 다시 말하면 두시는 일반 당시보다 생활화되고 서사성과 역사나 사회 문제를 관심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두시에 비해 이색의 영병시는 일상생활·내면세계·비에정서 등 방면에는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

### (1) 일상에 대한 부각

이색은 시에 일상생활 소재를 많이 다룬다고 한다. 일상은 주로 환경·기거·가족·음식·노동 등을 포함한 家庭詩와 飲酒詩, 詠病詩, 學文詩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병든다는 것도 일상에 속하는 일이라서 일상을 묘사하는 것도 당연

26) 呂運弼, 『李穡의 詩文學 研究』, 태학사, 1995, 266쪽.

한 일이다. 두보는 일상을 많이 다룬 당나라 시인이라고 하는데 「老病」·「客居」·「西閣曝日」 등 시에 객지의 생활, 햇볕을 쬐이는 여가 생활의 정취를 그려냈지만 서정성에 치중해서 세부 묘사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하기 때문에 질병에 연관된 구체적인 모습을 노정하지 않았다. 두보 영병시의 대표작인 「老病」을 살펴보겠다.

老病巫山裏 무산에서 병들어 늙어가며  
 稽留楚客中 초객이 되어 타향에서 머무르는 몸.  
 藥殘他日裹 먹는 약은 떨어지고 다른 날에 준비하고  
 花發去年叢 꽃은 작년에 봤던 떨기에서 다시 피어나네.  
 夜足霑沙雨 가랑비가 내리는 밤에는 물가 모래사장에서 거닐고  
 春多逆水風 봄에는 물 흐름을 거스르는 바람이 많네.  
 舍分雙賜筆 임금에게 두 자루의 붓을 하사받아야 마땅하건만  
 猶作一飄蓬 여전히 한 무더기 날리는 쭉과 같은 신세로구나.

「老病」은 766년 渝州와 夔州에서 지어진 시인데 시 내용을 통해 어떤 병에 걸렸는지 어떤 약을 먹었는지 파악되지 못하고 단지 시인의 불우하고 떠도는 고달픈 정서만 느낄 수 있다. 두보에 비해 이색 영병시는 일기처럼 병이 언제 났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효과가 어떤지 심지어 병중 음식까지 모두 자세하게 형상화하고 시로 노래했다. 목은 시 「卽事」(권28)를 살펴보겠다.

腰脚酸辛夢不成 허리 다리 쭉셔대니 꿈인들 제대로 이루겠나?  
 小娃急踏奈身輕 여아가 쿵쿵 밟아도 너무 가벼워 효과 없네.  
 忽聞石鼎松聲沸 돌솥 끓는 찻물 홀연히 솔마람 소리인 듯  
 又見蓬窓日色明 봉창엔 또 아침 해 비쳐 붉게 물들이누나.  
 逐物意移忘所痛 외물 따라 생각도 바뀌어 아픔을 잊을 수 있지만  
 吟詩興動恐難平 시 읊으며 일어난 흥취 가라앉히기 어려워라.  
 牧翁晚影只如許 목옹의 만년생활이 그저 이렇게 되니

誰識悠悠方寸情 유유한 이 마음 속뜻을 아는 이 누가 있으랴?<sup>27)</sup>

「卽事」(권28)는 한 밤중에 허리와 발의 통증이 한꺼번에 발병했기 때문에 잠도 이루지 못하는 바람에 시녀를 불러와 허리를 발로 밟게 함으로써 통증을 완화한 내용이 들어 있다. 심각한 허리의 통증은 이색의 감흥을 가라앉히지 않았을 뿐더러 병중의 깊은 사고를 시로 담아냈다. 또한 「卽事」(권19)에 불에 달궈 소독한 침으로 종기를 찔러서 고름을 빼내는 민간 치료법을 자세하게 기록했다.

火針決癰是鄉風 불침으로 종기 따는 건 향중의 풍속인데  
邪氣無由尙在中 나쁜 병균이 속에 남아 있질 못하거니와  
止痛生肌膏更妙 통증 멎고 새살 돋는 덴 고약이 또 좋아라  
從來引逸有蒼穹 예로부터 하늘은 사람을 편케 해주고말고.<sup>28)</sup>

불침으로 종기를 치료하고 통증을 멈추는 고약 등을 언급하면서 치료과정까지 형상화했으므로 이색은 고려인물 중에 질병을 가장 풍부하게 기록한 사람이라고도 한다. 따라서 두보 영병시에 비해 이색 영병시는 치료과정까지 포함한 일상을 섬세하게 부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 (2) 내면에 대한 집중

이색 영병시는 내면세계에 대한 깊은 사고를 담기도 한다. 이는 송시가 당시보다 이치를 탐색하는 철학성이 더욱 강하다는 특색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으나 영병시라는 특별한 시 유형으로써 이 특징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색 영병시 제목을 보면 「自傷」(권21)·「自詠」(권21)·「有感」(권23)·「自嘆」(권24)·「述懷」(권12)·「自詠」(권29)·「自吟」(권10)·「自詠」(권16) 등과 같이 스스로 읊는다는 예가 많다. 병중이라도 자신에 대한 반성과 사고를 한다는 것을 알

27) 이상현 옮김, 『牧隱詩藁』권28, 「卽事」, 한국고전종합DB, 2003.

28) 임정기 옮김, 『牧隱詩藁』권19, 「卽事」, 한국고전종합DB, 2002.

수 있다. 「自詠」(권21)을 살펴보겠다.

臂酸腰痛曉來并 새벽에는 팔과 허리가 아올러 아파서  
瓦片新燒帖得平 불돌로 찰질하여 겨우 평온을 얻었네.  
一刻亦長難忍若 일각도 너무 길어 고통 참기 어렵거니  
百年雖好視爲輕 백 년 장수 좋다지만 나는 하찮다 여긴다.  
詩書有味人將老 시서에 맛이 생기자 사람은 늙어 가는데  
天地無私物自生 천지는 사사로움의 것 없어 만물이 절로 자라네.  
靑嶂白波江上路 푸른 산 아래 하얀 물결 강가의 길목을 다니면서  
浩然歸興眼中明 돌아갈 흥취 호연하여 안중에 환하구나.<sup>29)</sup>

팔과 허리의 통증이 완화되자 시인은 병중의 순간이 건강할 때의 백년처럼 느껴지고 만물이 자라는 이치를 생각한다. 자신이 이미 늙어가지만 만물이 자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사사로움이 없다고 한다. 이렇듯 이색은 병중에도 천지의 이치나 내면세계를 계속 사색했다. 시의 앞에 부분에 치료 과정도 기록했고 마지막에 자연경치로 돌렸지만 ‘질병→이치→자연’이란 사고의 순서를 드러낸다. 두보도 병든 잣나무를 빌려 자신을 읊은 「病柏」에 천지 이치에 대한 관심이 드러난다.

有柏生崇岡 잣나무가 높은 언덕에서 자라  
童童狀車蓋 울창하니 모양은 수레 덮개 닮네.  
.....  
歲寒忽無憑 날이 추워져 갑자기 의지할 바를 잃으니  
日夜柯葉改 밤낮으로 가지와 잎사귀가 달라졌다.  
.....  
靜求元精理 조용히 하늘의 이치를 찾아보지만,  
浩蕩難倚賴 아득하니 의지하기가 어렵도다.<sup>30)</sup>

29) 임정기 옮김, 『牧隱詩藁』 권21, 「自詠」, 한국고전종합DB, 2002.

『杜詩詳注』에 따라 이 시는 肅宗 上元2년(761) 成都에서 지은 것이라고 했는데 『補注杜詩』에는 이 시는 郭英乂가 崔旰에게 살해당했을 때(766)에 지은 것이라고 한다. 시인은 병든 잣나무 심상으로써 자신의 처지를 읊었다. 마지막 연에 하늘 이치인 ‘元精理<sup>31)</sup>’를 탐구하려고 하지만 의지할 곳이 없어서 병든 나무처럼 나날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한탄했다. 두보 영병시에 언급된 ‘원정리’는 한나라 유학자 왕충이 제기한 철학 용어로 하늘과 인간의 도리라는 의미를 뜻한다. 이렇게 보면 두보의 철학 사고는 한나라 철학 영향을 받았다고 본다.

두보와 이색 영병시에 나타난 사상 면의 차이는 유학 발전의 시대적 특점에 연관된다. 唐의 유학은 주로 漢 이전에는 경전에 대한 해석에 치중했고, 宋·元에 이르러서 義理에 관한 程朱理學이 크게 발전했다. 두보는 孔孟 학설을 바탕으로 한 유학을 숭상했고 우여곡절을 겪은 생애에 유가의 가치를 직접 실천한 사람이다. 이런 점에서 莫礪鋒은 두보가 唐代 유학 발전에 제일 큰 성과라고 한다.<sup>32)</sup> 두보와 달리 이색은 정치활동으로써 유학을 실천했고 성리학 연구의 성과도 거두었다. 목은이 살던 시대는 성리학이 고려에 들어온 지 6,70년이 지났고 동아시아의 유학은 漢·唐經學이 宋·明理學으로 바뀌는 過渡期이다. 이색은 이 과도기에 한국 성리학의 기반을 튼튼히 다진 인물로서<sup>33)</sup> 원나라에서 급제한 아버지 이곡의 영향을 받고 元 大都 國子監에서 歐陽玄<sup>34)</sup> (1273~1357) 등 학자들을 스승으로 하여 3년 동안 공부해서 학문 기반을 닦았다. 그러므로 성리학 학자로서의 이색은 영병시에도 理와 氣에 관한 철학

30) 仇兆鰲 교주, 『杜詩詳注』 권10, 北京: 中華書局, 1979.

31) ‘元精’은 천지간의 精氣라는 뜻이고 後漢시기 王充(27~97?)이 『論衡』 「超奇」에서 “하늘이 원기를 받고 사람이 원정을 받는다.(天稟元氣, 人稟元精.)”라고 했기에 元精理는 천지에 대한 이치라고 이해할 수 있다.

32) 莫礪鋒, 「杜甫的文化意義」, 『古典詩學的文化觀照』, 中華書局, 2005, 115쪽.

33) 裴宗鎬, 『韓國儒學史』,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11쪽.

34) 歐陽玄, 자 原功, 호 圭齋이다. 『元史』권182, 『歐陽玄傳』에 따라 그는 원의 관직에 40여 년에 지냈으며 翰林學士承旨를 세 번을 했다. 經史百家의 경전을 편찬하지 않은 것이 없는가 하면 성리학 여러 학자들에 대해 깊이 연구하였다.

사색을 담아낼 수 있게 된다.

### (3) 비애에 대한 절제

요시카와 고지로(吉川幸次郎)는 송시가 서술성·생활에 밀착된 관계·연대감·철학성과 논리성·비애의 지양 등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sup>35)</sup> 비애에 대한 절제는 송시가 당시와 구별된 중요한 특징이다. 이 특징도 이색과 두보 영병시 간의 차이점으로 볼 수 있다.

渾家政酣夢 온 집안이 다 곤히 잠 들었는데  
 長夜獨沈吟 긴 밤을 홀로 조용히 읊노라니.  
 齒病連頭痛 치통은 머리까지 연해서 아프고  
 腰酸入骨深 허리는 뼈속 깊이 쭈셔대누나.  
 帖多丹復散 첩약은 많아라 단이요 또 산이요  
 術妙艾仍針 치료 방법은 뜸도 뜨고 침도 맞네.  
 枕上無窮意 베개 위의 무궁한 내 생각을  
 明明上帝臨 옥황상제는 밝게 내려다보리라.<sup>36)</sup>

「夜詠」(권7)은 한 밤중에 치통·두통·요통이 동시에 발병된 바람에 시인이 잠 못 이루는 것을 읊었다. 첩약이나 단약이나 가루약이나, 아울러 뜸뜨다거나 침을 맞는다거나 등 여러 가지의 약과 치료법을 모두 동원한다는 것을 보면 병세의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시 중에 고통스러운 비애를 선보

35) (日)요시카와 고지로(吉川幸次郎) 지음, 호승희 옮김, 『宋詩概說』, 동문선, 2007, 57~58면. '이상과 같이 송시는 당시뿐 아니라 종래의 시들과 두루 비교해 보아도 새로운 모습의 시이다. 송시와 같이 서술하고 논의하고 생활에 밀착되고 연대감에 의한 비판을 보여주는 시는 이제껏 나타나지 않았다. …… 서술·의론·생활에 대한 밀착, 연대감이 당시에도 이미 두보나 한유, 백거이 시에서 내포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 언급했다. 송시는 언뜻 보면 당시와는 대조적으로 보이고, 또 사실 그러하다 해도 역시 당시의 연장선 위에 있다.'

36) 임정기 옮김, 『牧隱詩藁』 권7, 「夜詠」, 한국고전종합DB, 2001.

이지 않았다. ‘낮은 소리로 신음하다(沈吟)’는 말도 지병에 어쩔 수 없는 대응 방식에 불과하다. 고통을 견디고 치료를 받는 이색은 의외로 베개 위에 사색에 빠져서 상제를 만났다. 그만큼 조용한 마음 상태를 엿볼 수 있다. 육신의 병통에 시달리는 상황에 문학이나 철학에 관한 사고가 오히려 마음을 진정하고 안정감을 획득하는 효과가 있다고 본다.

병중에 시를 읊는 것이 이색에게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방법이라고 하면 두보에게는 마음속의 울분을 털어놓는 방식이다. 정신의 안정을 얻게 되면 침착할 수 있겠지만 하소연을 하면 강한 감정을 지닐 수밖에 없다. 두보가 767년 한식날에 지은 「熟食日示宗文宗武」에 소갈병에 걸린 것을 한탄하고 전란 와중에 한식 명절이 되더라도 고향에 돌아갈 수 없는 것을 읊었다. 특히 마지막 연에 ‘너희들이 나의 늙음을 재촉하노니 고개 돌려 눈물만 줄줄 흐르네.(汝曹催我老, 回首淚縱橫)’라는 것은 강한 애달픔을 드러냈다.

生年鵬冠子 평생토록 갈관자<sup>37)</sup>이요  
 歎世鹿皮翁 세상을 탄식하는 녹피옹<sup>38)</sup>.  
 眼復幾時暗 눈은 또 언제나 어두워질까?  
 耳從今月聾 귀는 지난달부터 멀어졌는데.  
 猿鳴秋淚缺 원숭이 우는 가을에도 눈물이 나지 않고  
 雀噪晚愁空 참새가 우는 저녁에도 수심이 사라버렸네.  
 黃落驚山樹 누렇게 떨어지는 게 나뭇잎이 아닌가?  
 呼兒問朔風 아이 불러 북풍이 불고 있는지 물어본다.

또한 「耳聾」은 두보가 767년 가을 기주에서 지은 작품이다. 765년 성도를 떠난 후 건강상황은 나날이 나빠졌고 폐병·당뇨병·수전증에 걸리는데다가 눈과 귀도 멀었다. 시인은 은자로 자처하고 듣고 보는 것이 모두 수심이라고 해서 이제 눈과 귀가 모두 멀어졌으니 오히려 잘 된 것이라고 자신을 위로하고

37) 鵬冠子: 주대 초국의 은사. 갈관은 갈새의 깃털로 장식한 관을 가리킨다.

38) 鹿皮翁: 鹿皮公이라고도 한다. 전설의 사슴 모피를 입은 선인 이름이다.

있다. 특히 ‘秋淚’와 ‘晚愁’와 같은 정서의 표현은 실의와 슬픔의 지극함을 드러냈다.

嚴羽는 두보가 「進雕賦表」의 ‘沈鬱頓挫<sup>39)</sup>’라는 말을 빌려 두보 시의 풍격을 ‘침울’이라고 평가한다는 것은 두시 풍격의 보편적인 관점이 되었다.<sup>40)</sup> ‘침울’은 울분과 비장한 느낌이고 ‘돈좌’는 구성이나 시어 선택에 있어서 다양한 변화를 강구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은 두시 풍격은 평담함과 안정감을 추구하는 송시와 뚜렷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두시와 이색 영병시에도 이와 같은 풍격 면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본다.

두보와 이색의 영병시는 표현 면의 유사성과 일상·내면·비애 등 풍격 면의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유사성과 차이점이 나타나는 원인은 목은이 당·송 문학을 수용함으로써 唐宋融合이라는 종합적인 문학 풍격을 이루는 데에 있다고 본다. 목은은 고려시기에 풍미했던 송시의 문학성과를 수용하여 성리학적인 평담한 시풍을 추구하는 가운데, 두시를 비롯한 당시의 문학 형식과 시어 표현을 함께 흡수했으므로 자신의 시문학을 확립했다고 본다.

### 3. 病中戀君의 지향

두보와 이색은 모두 유가적 가치 관념을 가지고 있다. 儒士 신분에 대하여 두보는 젊은 시절에 일찍 ‘임금을 보살피 요순을 뛰어넘게 하고, 다시 풍속을 순박하게 하리라.(致君堯舜上, 再使風俗淳.)’라는 뜻을 품었다. 이색은 고려말기 유학의 종조가 되는 만큼 유가 성리학에 대한 연구가 깊고 두보의 도덕적

39) 杜甫, 「進雕賦表」, ‘신이 지은 것은 비록 육경을 고취시키고 여러 사말보다 먼저 드러나지는 못하지만 ‘침울돈좌’에 이르러서는 때에 따라 민첩하여 양웅과 매고의 뒤를 거의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臣之述作, 雖不能鼓吹六經, 先鳴數子, 至於沈鬱頓挫, 隋時敏捷, 揚雄·枚臯之徒, 庶可企及也.)’

40) 嚴羽, 『滄浪詩話·詩評』, ‘두보는 이백의 표일함이 될 수 없고, 이백은 두보의 침울함이 될 수 없다.(子美不能爲太白之飄逸, 太白不能爲子美之沈鬱.)’

인격에 감복하여 「紀事」(권17)에 두보를 나라를 다스리는 덕성과 능력을 가진 ‘묘당의 그릇(廊廟器)<sup>41)</sup>’이라고 칭찬했다.<sup>42)</sup> 그리고 두보와 이색 문학의 시종일관된 유가적 가치 이념은 영병시도 그대로 반영되었다. ‘병중연군’, 즉 고통의 시달림을 견딘 채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그리워하는 것은 유가 선비로서의 가치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가치 지향은 두 시인 영병시 사상 면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두보 영병시의 특별한 주제인 ‘병중연구시’ 양상은 앞에 ‘〈표-1〉 杜甫의 詠病詩’에 확인할 수 있고 구체적인 면모를 살펴보겠다.

秋窓猶曙色 가을 창가는 아직 새벽인데  
 落木更高風 민둥나무에 다시 높은 바람 부네.  
 日出寒山外 해는 차가운 산 밖으로 나오고  
 江流宿霧中 강은 짙은 안개 가운데로 흐른다.  
 聖朝無棄物 성스런 시대엔 버릴 인재 없지만  
 衰病已成翁 마르고 병들은 이 몸은 벌써 늙었구나  
 多少殘生事 남은 생은 얼마인가  
 飄零任轉蓬 나부끼는 쭉대처럼 이리저리 떠도는구나.<sup>43)</sup>

「客亭」은 762년 두보가 집안 식솔을 맞이하러 梓州에 이르렀을 때 지은 작품이다. 성도 초당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삶을 지낸 후에 다시 마르고 병든 신세를 한탄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한 재능을 발휘하려는 마음을 품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夔州 시기에 鳳翔에서 같이 어울리던 蔡 侍郎을 10년 만에 다시 만나

41) 杜甫의 「自京赴奉先縣詠懷」 시에 ‘지금 낭묘의 도구로 말하자면, 큰 집 짓는 데 어찌 재목 없다 할손가.(當今廊廟具, 構廈豈云缺.)’ 한 데서 나온 말이고 廟堂에 앉아서 천하를 다스릴 만한 宰相의 자격을 가리킨다.

42) 임정기 옮김, 『목은시고』 권17, 「紀事」, 한국고전종합DB, 2001. ‘나는 두릉의 낭묘의 도구를 배우고프나 다만 신세가 분주함 속에 늙음이 걱정일세.(欲學杜陵廊廟器, 只愁身世老奔波.)’

43) 楊倫 편주, 李官成 번역, 『杜詩鏡詮』3, 대전: 도서출판 문진, 2013, 93쪽.

고 지은 「別蔡十四著作」에 소갈병이 심각하지만 부지런히 힘쓰고 있는 임금을 감히 잊을 수 없다고 노래했다.<sup>44)</sup> 또 「送顧八分文學適洪吉州」에는 ‘재능이 떨어진 것이 외모에 상하고 소갈병이 벼슬자리를 더럽힌다.(才盡傷形體, 病渴汙官位.)’라고도 한다. 병을 앓는데도 임금을 그리워하고 나라를 염려하는 선비의 마음을 엿볼 수 있다.

楚王宮北正黃昏 초왕궁 북쪽은 황혼이 한창이고  
白帝城西過雨痕 백제성 서쪽에 비 지나간 흔적 있다.  
返照入江翻石壁 저무는 햇살 강물로 비쳤다가 돌벽에 반사되어 일렁이고  
歸雲擁樹失山邨 돌아가는 구름이 나무숲 끌어안아 산골 마을이 사라졌다.  
衰公病肺惟高枕 노쇠한 나이에 폐병까지 들어 그저 베개만 높이 베고 누워  
絕塞愁時早閉門 외딴 변방에서 시절을 근심하며 일찍이 대문 닫았다.  
不可久留豺虎亂 승냥이 호랑이 어지럽게 날뛰는 곳에 오래 머물 수 없으니  
南方實有未招魂 남방에는 실로 아직 불려오지 못한 혼이 있다.

「返照」는 두보가 766년에 기주에서 지은 시이다. 당시 杜鴻漸이 代宗의 명을 받아 촉을 다스리고 있는데 사천 지방 군벌을 무서워해서 오히려 방임했었다. 두보가 폐병 때문에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병중에도 시책을 비판하고 나라를 사나운 짐승과 같은 군벌들에게 맡길 수 없다고 한다. 시인이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을 엿볼 수 있다. 같은 해에 지은 「搖落」에서도 ‘오랫동안 임금에게 보답하려 했는데 병들어 누워 다시 높은 가을맞이하네.(長懷報明主, 臥病復高秋.)’라고 하면서 임금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표하였다.

이색은 나무끼는 쭈대와 같이 떠도는 경험이 거의 없었고 두보보다 넉넉한 삶을 보냈지만 병중에도 연군하는 정서를 드러내기도 한다.

44) 楊倫 편주, 李官成 번역, 『杜詩鏡詮』 3, 도서출판 문진, 2013. 528쪽. 「別蔡十四著作」, ‘이 몸 비록 소갈병이 심하지만 감히 임금이 부지런히 힘쓰는 잊으랴. 아직도 뼈는 나약하지 않으니 다시 발 갈고 뿔 치는 백성을 보리라.(我雖消渴甚, 敢忘帝力勤. 尙思未朽骨, 復觀耕桑民.)’

天陰病骨劇酸辛 날이 흐리며 병든 삭신이 몹시도 아파서  
 摩挫長教小婢嗔 안마하는 여종 아이를 마냥 짜증나게 하네.  
 未向近郊躬接駕 교외에 나가서 몸소 어가는 영접 못 하고  
 聊從陋巷頂無巾 구차히 시골집서 두건도 안 쓰고 있자니.  
 陳雲古樹風聲絕 구름 낀 고목나무엔 바람 소리 끊어지고  
 小雪空村夜色新 눈 내린 텅 빈 마을엔 밤빛이 새롭구려.  
 獨坐獨吟情不盡 홀로 앉아 읊노라니 우국충정 끝없어라  
 廟堂高處政憂民 묘당의 높은 자리서 백성 근심하는 때로세.<sup>45)</sup>

「腰酸縮座」(권20)에 흐린 날씨에 요통이 나서 통증 때문에 쭈그려 앉을 수 밖에 없는 시인의 고통을 그려냈다. 병중 지은 시에서도 묘당 위에서 백성을 위해 근심이 되는 임금을 노래한다.

病床知夜靜 병상에 밤이 조용함을 알겠네  
 老境半生閑 늘그막의 반평생이 한가롭구나.  
 窓白吟餘月 흰 창문은 읊는 나머지 달빛이요  
 燈青夢裏山 푸른 등불은 꿈속의 산이로다.  
 國風趨下劣 나라 풍속은 비열한 데로 달리고  
 世路轉間關 세상길은 더욱 험난해져만 가니.  
 異日觀民俗 후일에 백성의 풍속을 보려거든  
 吾詩或不刪 내 시도 혹 버리지 않게 되려나.<sup>46)</sup>

「夜詠」(권9)에는 병상에 누워 있는 시인은 나라의 풍습이 날로 나빠지면 서 위태로워질 나라의 미래를 염려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시가 어지러운 세상을 교화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믿고 자신의 문학이 오래 전해질 것이라고 한다. 문학의 교화 기능을 주요시하는 유가적 문학관을 드

45) 임정기 옮김, 『牧隱詩藁』 권20, 「腰酸縮座」, 한국고전종합DB, 2002.

46) 임정기 옮김, 『牧隱詩藁』 권9, 「夜詠」, 한국고전종합DB, 2001.

러낸다.

두보와 이색의 영병시는 모두 개인 병통에 그치지 않고 임금과 나라의 현실을 응시하고 있었으나 이색은 임금의 시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에 관심이 더 많은 반면에 두보는 떠도는 생활고를 겪으면서 제대로 벼슬길을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질병이 뜻을 펴는 지장이 된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따라서 영병시에 표출된 연군 지향은 이색에게는 위로가 되고 두보에게는 한이 된다는 것으로 생각한다.

#### 4. 稱病稱老의 관습

서론에서 제시했듯이 칭병이나 칭로의 표현은 광의적인 영병시에 속할 수 있고 주로 창수작품에 나타나고 상대 앞에서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거나 자기를 비웃는 상례적인 표현 습관이다. 사회교제 자리에서 문인 사이에 주고받는 시에 나타난 칭병이나 칭로의 관습은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칭병은 반드시 구체적인 병명까지 언급할 필요 없고 자주 ‘병이 많다(多病)’, ‘늙어서 병든다(老病)’ 등으로 표현된다. 두보와 이색은 ‘多病’, ‘老病’으로 칭병하는 작품도 있는데 특히 젊은 나이에 칭병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 두보 칭병의 예:

- ⑨ 병이 많아 선비 옷도 벗어던지고, 조용한 곳을 찾아 나그네가 되어 떠돌아 다닌다오.

「敬贈鄭諫議十韻」: 多病休儒服, 冥搜信客旌.

- ⑩ 많은 병에 홀로 시름하여 항상 쓸쓸한데 옛 벗을 서로 보기가 쉽지 않네.

「暮登四安寺鍾樓寄裴十迪」: 多病獨愁常閱寂, 故人相見未從容.

- ⑪ 병마가 이리저리 내달릴 때, 사립문에 늙고 병든 몸.

「贈別鄭鍊赴襄陽」: 戎馬交馳際, 柴門老病身.

- ⑫ 궁벽진 곳에 조용히 사니 나그네도 적은데 늙고 병들어 부축 받아 절하기도 어렵구나.

「賓至」: 幽棲地僻經過少, 老病人扶再拜難.

⑨는 751년 두보 40세에 鄭 諫議에게 바친 시인데 40세 나이에 병이 많다고 한 것은 과장된 표현으로 본다. ⑩은 蜀州에 있을 때 裴迪와 만남을 약속했고 나중에 배적이 오지 않았으니 두보가 이 시를 지었다. 병이 많다는 말은 적막한 심정을 읊은 표현으로 본다. ⑪은 762년 성도시기에 鄭鍊을 배웅하는 자리에서 어지러운 세상에 자신의 늙고 초라한 모습을 그려내는데 대구를 갖추기 위해 짜는 표현으로 본다. ⑫는 성도시기에 손님을 맞이할 때에 지은 시이고 사는 집이 궁벽하고 늙어서 병든다는 말은 겸손한 인사말이다.

#### 이색 청병의 예:

- ⑬ 흐르는 세월에 나는 병만 많은데 강호에는 그 누가 홀로 깨는가?  
「謾題」(권3): 歲月吾多病, 江湖誰獨醒.
- ⑭ 백발의 늙은 몸에 병도 많은데 국화주를 재차 따라 마시노라.  
「天台判事携酒見訪曹溪猗公適至」(권11): 白髮身多病, 黃花酒再斟.
- ⑮ 늙고 병 들어도 맑은 흥취 많아서 시편 이루어 한두 번 읊조리노라.  
「自賦」(권11): 老病饒清興, 詩成一再吟.
- ⑯ 백발 나이로 병도 많은 한산 늙은이는 그 당시 뽀뽀스레 군웅을 시종했는데.  
「謝李開城携酒見訪」(권16): 白頭多病韓山翁, 強顏當日陪群雄.

⑬은 1355년 이색 28세에 지은 시인데 젊은 나이에 병이 많다고 하는 것은 성숙한 문학 감각을 추구한 표현으로 생각된다. ⑭는 1378년 51세에 지은 시이고 ‘다병’이란 말은 대구를 만들기 위한 표현이고 실제로 병이 많다는 것이 아니다. ⑮도 51세 지어진 시인데 노병은 늙어간다는 뜻이다. ⑯은 머리가 하얗게 된 나이에 병도 많은 한산 늙은이는 자조하는 표현이고 술자리의 농담으로 본다.

백거이도 18세에 「病中作」이라는 시를 지었고 ‘삶을 피곤하게 하는 일만 오래도록 해 왔을 뿐, 섭생하는 방법은 강구하지 않았네. 소년 나이에 벌써 병이 많으니, 늙기까지 이 몸으로 어떻게 버틸 것인가.(久爲勞生事, 不學攝生道. 年少已多病, 此身豈堪老.)’라고 읊으면서 어린 적부터 문학 재능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얻은 이유는 어린 나이에 병통 속에 담겨 있는 이치를 터득했다는 성숙함에 있다고 본다.

두보와 이색 시에 나타난 칭병 표현을 확인하고 문인들이 창수작품을 쓰고 교류할 때에 일부러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세를 보이거나 놀림조로 자신을 웃기는 상황에 자주 칭병을 한다. 이 외에 어린 나이에 칭병하는 경우는 미숙한 문학에 성숙함을 가미하기 위한 표현이나 율시의 대구 형식을 만들기 위해 노병이나 다병이란 시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칭병이나 칭로의 표현은 두보와 이색 영병 문학의 공통점일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고전문학 전통에서 내려온 문학 표현 습관이라고도 할 수 있다.

## 5. 맺음말

본고에서는 먼저 영병시라는 개념을 광의적으로 질병을 언급하는 시와 협의적으로 질병을 시의 주된 제재나 소재로 하는 시라고 규정하고 이색과 두보의 영병시를 비교고찰을 했다. 두보의 영병시는 83수로, 이색의 영병시도 몇 백수정도 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두보는 소갈증·폐병·귓병·안병·다릿병·치통 등의 영병시를 지었고 이색은 요병·치병·폐병·안병·다릿병 등 질병에 관한 영병시를 창작했다.

이색과 두보 영병시는 유사한 어휘나 전고를 사용했고 병든 송골매나 선학의 심상을 빌려서 자신의 처지를 투영하는 비슷한 주제를 통해 고통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를 보여준다는 표현 면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풍격 면의 차이점은 3 가지가 있다. 첫째, 두보 영병시는 서정에 치중하기 때문에 세부 묘사의 모호성이 있는 특징에 비해 이색 영병시는 치료 방법과 과정까지 포함한 일상을 섬세하게 부각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둘째, 두 시인 영병시에 모두 내면에 대한 사색을 담고 있으나 두보 영병시에 나타난 철학 사고는 한 나라 철학의 영향을 받는 반면에 이색은 주로 송·원의 理氣哲學의 사색을 드러냈다. 셋째, 두시에는 애달픈 정서를 직접 표출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색 영병시에는 비애 정서를 절제하고 성리학적인 평담한 풍격을 추구한다. 그 외에 이색과 두보 영병시는 모두 개인 병통에 그치지 않고 임금과 나라의 현실을 응시했으나 이색은 임금의 시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에 더 많은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두보는 떠도는 생활고를 겪으면서 제대로 벼슬길을 진출하지 못한 탓에 질병이 뜻을 펴는 지장이 된다는 우려를 표하였다. 그런가 하면 이색과 두보 시에 모두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태도를 보이거나 놀림조로 자조하는 칭병이나 칭로의 표현을 드러낸다. 질병 종류에 따라 전개되는 질병시의 구체적인 문학 특색에 대한 분석은 향후의 과제로 남긴다.

## 參考文獻

- 郭紹虞, 『滄浪詩話』, 서울: 소명, 2001
- 杜甫 著, 仇兆鰲 注, 『杜詩詳注』, 북경: 중화서국, 1979
- 方回, 『瀛奎律髓』,合肥: 黃山書社出版社, 1994
- 李穡, 『牧隱詩藁』, 한국고전종합DB, 2000
- 楊倫 편주, 李官成 번역, 『杜詩鏡銓』3, 대전: 도서출판 문진, 2013
- 宋濂, 『元史』, 서울: 경인문화사, 1979
- 王充, 『論衡』, 서울: 소나무, 1996
- 徐居正, 양주동 번역, 『東文選』, 서울: 한국고전번역원, 1968
- 張之象 편, 『唐詩類苑(四)』,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2006
- 姜玟求, 「牧隱 李穡의 疾病에 대한 意識과 文學的 表現」, 『東方漢文學』 제42집, 동방한문학회, 2010
- 金鎭英, 金東建, 「목은 이색의 삶과 시세계의 몇 국면」, 『국어국문학』 제150집, 국어국문학회, 2008
- 裴宗鎬, 『韓國儒學史』,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8
- 呂運錫, 『李穡의 詩文學 研究』, 서울: 대학사, 1995
- 李奉相, 「강북좌천 이전 白居易의 질병과 '詠病詩」, 『中國文學研究』 제41집, 한국중문학회, 2010
- 曹浩龍, 「牧隱詩 研究」, 계명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85
- 莫礪鋒, 『古典詩學的文化觀照』, 北京: 中華書局, 2005
- 蒙祖富, 「論疾病與白居易詩歌的關係」, 『貴陽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12년 제4기
- 余厚洪, 「論杜甫疾病詩與杜詩風格形成之關係」, 『麗水師範專科學校學報』, 제23권 제6기, 2001
- 요시카와 고지로(吉川幸次郎) 著, 호승희 번역, 『宋詩概說』, 서울: 동문선, 2007
- 劉志峰, 「이색과 두보 시문학 비교연구」, 경희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4
- 李益柱, 『이색의 삶과 생각』, 서울: 일조각, 2013
- 蕭滌非 편, 『杜甫全集校註』,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14

孫立峰, 「絕路詩人求生的幻境--白居易詠病詩的思想和藝術價值」, 『學習與探索』, 1994년 제4기

程校花, 「論杜甫的疾病詩及其文學史意義」, 『太原大學學報』, 2010년 제4기

韓成武, 『杜甫新論』, 保定: 河北大學出版社, 1984

黃靜, 「藝術造詣與生命悲歌--杜甫疾病詩藝術探索」, 『海南師範大學學報』, 2014년 제10기

## Abstract

### A comparative study of Du Fu and Li Seak(李穡)'s poetry of diseases

Liu, Zhifeng

Both Du Fu(杜甫) and Li Seak(李穡) used to have a variety of illness experience, and created a lot of poems with the theme about disease. The poem related to disease is a special research perspective. This paper is based on this perspective to do a comparative study of Du Fu and Li Seak's poetry literature through comparing the difference and resemblance of the poems about diseases.

First of all, we collated the works of Du Fu and Li Seak, and selected the disease theme poems to understand the whole situation of the poems. Then compare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poets in their literary expression and poetic style.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is that there are some similarities between the two poets in their literary expressions, especially in the use of words and literary quotation, as well as describing the sick animals to refer to their own situations.

But from the point of poetry style,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which mainly reflected in the following points. Li Seak's disease poetry has more nuanced description of daily life. And expressing the emotional about disease as well as focusing on the philosophical thinking. Also the part of pain description did not show too much sorrow. The reason of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the disease poetry mainly in the Song dynasty poetry style reflected in Li Seak's poems. Li Seak tried to use literature to record life, and express the philosophical thinking, and pursuit of a quiet and flat style of poetry. At the same time, Li Seak accepted Du Fu's literature as the representative of Tang dynasty literature mainly in the poet vocabulary and literary expression. Consequently a fusion poetry style of Tang and Song Dynasty literature was formed.

The other two common points of Du Fu and Li Seak's poetry is in the Confucian value of patriotism, and in the purpose of modesty and self-mockery, both of them used an expression of claiming ill health in their social communication poem

works.

**Key words :** Du Fu, Li Seak, poetry of disease , Confucian values, the expression of claiming ill health .

투 고 일 : 2017. 10. 10. / 심 사 일 : 2017. 10. 15.~ 2017. 11. 15. / 게재확정일 : 2017. 11. 20.